

안철수·이낙연·황교안... 증시 널뛰기 '정치테마주' 주의보

안철수 전의원 정계복귀 선언에 '안랩' 주가 23.66% 뛰어올라 이낙연·황교안 테마주도 술렁 투자자 현명한 옥석가리기 필요



4·15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테마주부터 '이낙연 테마주', '황교안 테마주'까지 정치 테마주가 들쭉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철수 전의원,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오는 4·15 총선 전까지 주식시장에 '정치 테마주'가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 분석이다. 당선 유력 후보 관련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개연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현명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총선이 있었던 해의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면 연 초 4개월 동안 거래량이 유독 많았다. 지수 상승률은 낮았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테마장세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20대 총선의 경우 그해 1월 2일부터 선거 직후인 4월 15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약 414억주가 거래됐다. 그러나 선거 다음 주인 4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간 거

래량은 146억주에 불과했다.

상황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주요 테마주로 안착한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소재·부품·장비 등이 그렇다.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되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AI 업종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

람회인 CES와 맞물리며 여러 AI 관련주가 관심을 받는 중이다. 라온피플은 지난 6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일 대비 5.6% 상승한 2만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부·장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20%나 급등했다. 7일 전 거래일보다 0.59% 상승한 1만7100 원원에 장을 마감했다.

선거철마다 매번 반복됐던 정치 테마주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총선 주자로 예상되는 유력정치인과 관련된 업체의 주가가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테마주가 대표적이다. 안 전 의원이 창업한 보안업체 '안랩'은 지난 2일 전 거래일보다 23.66% 뛰어오르며 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안랩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씨니전자도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2년 만에 8만원 선을 넘겼던 안랩은 7일 전 거래일보다 3.80% 하락한 7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낙연 테마주', '황교안 테마주'를 찾는 투자자 역시 쉽게 볼 수 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의 테마주 투자바람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5번의 총선을 분석해보면 이전 3개월 동안 코스닥 거래대금이 총선이 아닐 때보다 높았다"며 시장에서 테마주 장세가 펼쳐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전 투자 전략으로 짧고 기민한 테마를 추천했다. 김 연구원은 "총선 전에는 해당 기간 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AI, 2차 전기 장비가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가 높다"며 "관련 종목들 주가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동지역을 둘러싼 리스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코스닥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는 얘기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 투자로 수익을 챙기긴 힘들다"며 "업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합리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 상승요인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seoul.co.kr

'지하철 호재' 옥정·검단·운정 아파트 주목

옥정, 서울 7호선 연장사업 시작 '양주옥정 유립노르웨이숲' 분양
검단, 인천1·서울5호선 등 연장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분양
운정, 대화~운정신도시 연장 추진 '파주운정3금강펜테리움' 공급

새해 옥정(경기도 양주시)·검단(인천)·운정(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이곳은 모두 지하철 연장선이 닿는 곳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옥정신도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검단신도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 운정신도시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이 진행된다.

먼저 옥정신도시의 경우 지난달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도봉산~옥정, 15.3km) 연장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노선이 오는 2024년 완공되면 옥정신도

시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을 통해 3정거장 만에 서울에 닿게 된다. 강남구청, 학동, 논현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에도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옥정신도시에서는 ㈜유림E&C가 오는 2월 옥정신도시 A-20(1)블록에서 '양주옥정 유립노르웨이숲' 72~84㎡, 1140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예정)과 인접해 환승 없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GTX-C노선 덕정역(예정)을 통해 삼성, 양재역 등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지난 10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발표로 인천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및 GTX-D 노선(예정) 등이 신설된다.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3개 정거장이 생긴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도 추진 중

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검단신도시~일산킨텍스)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단신도시에서는 동양건설산업이 이달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이어지는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84㎡ 1122가구를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도 보편에 위치해 있으며 영어마을과 유치원 및 초, 중, 고교와 인접해 있다.

운정신도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이는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다. 3호선 파주 연장선은 고양 일산동구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 7.6km 구간이 연장된다.

올해 운정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오는 4월 운정신도시 A32블록에 짓는 '파주운정3금강펜테리움(가칭)' 778가구를 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5G 통신장비 인증시장 80% 이상 점유

株라쿨라의 종목
기술 시험인증업체 [에이치시티]

"5G 시험인증 일괄 밀려든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7일 "정부 인증을 대리할 수 있는 시험인증 업체인 에이치시티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치시티는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품질보증실에서 분사된 회사다. 사업부문은 정부를 대신해 전자기기가 정식 출시되기 전 안전성 불량 기술검사 등을 진행하는 시험인증 부문(약 69%)과 각종 전자제품 생산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신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 부문(약 31%)으로 구성된다.

최 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유무선 통신망을 비롯해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장비도입까지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장비도입을 위해선 시험인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

치시티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치시티는 지난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5G 국가지정 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G 통신장비 및 단말기 시험인증 시장 내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치시티 실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해 출시되는 신규 모델의 개수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Global Data)에 따르면 국내 5G 통신장비 종류는 지난해 초 272개에서 연말 578개로 1년 동안 112% 이상 확대됐고, 올해도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5G 장비는 4G장비보다 시험항목이 많고 소요기간도 최대 3~4배 이상 길다"면서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수료와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한 2020년 에이치시티의 시험인증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이상 증가한 4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최 연구원은 추정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여의도 해링턴 타워 196' 오피스텔 분양

진흥기업, 전용 18.1㎡ 복층형

진흥기업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여의도 해링턴 타워 196' 18.1㎡ 196실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총 196실 규모로 지어지며 모두 전용면적 18㎡의 복층형이다.

해링턴 타워 196은 영등포역, 신길역, 여의도역에서 불과 7분 거리의 대로변에(옛 경원극장) 위치해 있으며, 영등포역 KTX 및 김포, 영종도 공항 진입이 용이하다. 전세대 복층구조로 루프가든, 공유스튜디오, 조식서비스, OA비즈니스편의공간, 공유차량 서비

스(일부 서비스는 유료)가 제공된다.

이 오피스텔의 장점은 교통여건이 꼽힌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여의도에서 청량리는 35분에서 10분, 송도는 82분에서 27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신안산선 역시 여의도와 안산 한양대역을 100분에서 25분, 원시까지 69분에서 36분대로 좁혀진다. 또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 간 총 44.6km 구간을 쾌속 연결할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각 노선은 물론 소사원시선, 율곡관교선으로의 환승도 자유로이다.

여의도 업무지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대투자를 하려는 투자자와 향후 영등



'여의도 해링턴 타워196' 투시도.

포구의 개발호재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홍보관은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0 대립 아크로타워스퀘어 판매시설 13동 113호에(지하철 영등포시장역 2번출구)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신한금융, 얼터너티브투자 펀드展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얼터너티브투자 펀드展(展)'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얼터너티브투자 펀드展' 이벤트는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앱 '알파'와 홈페이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의 통합금융플랫폼인 '신한플러스'에서 온라인 공모 펀드를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주식, 채권을 포함한 선박, 항공기,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표펀드도 소개한다.

이번 이벤트는 생애 최초로 10만원 이상 신규 온라인 펀드 가입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최소 100만원 이상 온라인 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은 10명, 3만원은 50명, 1만원은 100명에게 지급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앱 '알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손업지 기자